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제4회 컴세미나(4th COME Seminar) / 회교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고 느끼는 기회로

9월 20일 ~ 28일, 회교권 목회자 초청

실제적인 목회현장 탐방 및 한국의 현실 이해의 기회

교회는 오는 9월 20일(수) ~ 28일(목)까지 8박 9일간 제4회 충현해외목회자 교육세미나(Choonghyun Overseas Ministers Education Seminar)를 개최한다. 일명 COME 세미나로 불리는 이 세미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온 세계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모습을 보여주며 부흥하게 된 원인과 방법을 인도하는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9월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열리게 된 것이다.

금년에는 회교권 중에서 이집트, 수단, 터키 목회자 30여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게 된다. 초청대상자는 ① 현지 교회 목회자로서 충현교회의 선교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 ② 현지 교회, 교단, 교계 및 종교 행정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 ③ 충현교회와 계속적으로 목회 교류가 가능한 사람 등으로 이집트 목회자는 이준교 선교사가, 수단 목회자는 김영대 선교사가, 터키 목회자는 이원호 선교사가 초청대상자를 추천하게 된다.

지난 90년에 동구권 7개국 목회자 27

명이 참가함으로써 처음 열린 세미나는 91년에는 동남아시아지역 중국어권 목회자를 초청하여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31명을 초청하여 실시했다.

9일간 진행될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 보수주의 신앙의 전통을 소개, 현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 실시, 세계선교의 현황 및 회교권 선교의 전략과 방법연구 등의 내용이 다뤄질 계획이다.

세미나 기간 중에 강의와 현장 답사, 교회 내의 각 부서 탐방, 구역예배 참관, 충현기도원에서의 산상기도회 등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세미나의 모든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며, 숙소는 햇빛교회 숙박동, 식사 및 교육진행은 교회내 식당 및 국제회의실에서 하게 된다.

오늘 새가족환영회

5월 28일 ~ 7월 2일까지

740여명 등록자 전원

오늘 IV부 예배 후 교구 모임 시간에 새가족환영회를 갖는다. 지난 예수사랑 큰잔치에 등록된 사람을 포함하여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등록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는 교구별로 준비하여 따뜻하게 환영하는 분위기가운데서 진행해야 하겠으며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도 나누어 준다. 새가족을 인도한 사람은 가급적 함께 IV부 예배를 드리고 교구 모임의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오늘 새가족으로 환영 받아야 할 대상은 740여명이다.

국민학교부

여름 계절학교 지난주에 마쳐

중등3부는 학부모와 기도하는 순서도

영아부, 유아부를 위시해서 초등1부부터 초등5부까지의 여름어린이성경학교가 지난 주일 18일~20일까지 교회당에서 모였다.

한 주간 내내 교회는 활기찬 어린이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여름방학을 맞으며 시작된 국민학교부 여름계절학교는 간간히 비 뿌리는 가운데서도 교회당 전체를 사용하여 활기차게 진행됐다.

초등4부와 5부는 하룻밤을 교회당에서 자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초등6부와 중등1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지며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사귀는 시간들을 가졌다.

에바다부(사진)는 7월 16일 ~ 18일,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특히 에바다부 수련회는 회원들만 아니라 회원 가족까지도 참석하는 가족 수련회로 교육효과를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금주에는 중등2부, 중등3부가 7월 24일~26일 충현기도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특히 중등3부는 이번 수련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7월 24일(월) 저녁 7시에 모이는 부흥회 시간에 학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중등3부의 학부모들은 시간을 내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면 좋을 것이다.

회계감사 실시

1995년 상반기 회계감사가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되어 한달동안 진행되고 있다. 각 부서의 회계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선교관 403호(매주일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감사위원회실로 와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회 충현올림픽

- 일시: 95년 10월 3일 08:30~4:30
- 장소: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 참가자: 충현교회에 등록된 전교인 및 태신자, 전도초청대상자



삼풍사고 실종자 구조 및 가족위로

지난주 7월 18일(화) 오후 3시, 김장인 원로목사님은 서울 교육대학 강당에서 가진 '삼풍사고 실종자 구조 및 가족을 위한 연합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참사를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격려하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아픔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는 가족들을 위해 속내의 상하 800벌을 기증하여 그들을 위로했다.



● 요한계시록 강해 44 ●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

(계 21:1-8)

사람은 누구나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새 것입니다. 자고 깨어나도 새롭고 살아갈수록 새롭고 다시 보아도 새로운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1. 새 하늘과 새 땅

(1)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자기 영안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5,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본문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전 것, 즉 옛 하늘과 옛땅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사 65:17).

좀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의'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의', 바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곳(암 5:24)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도래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에덴동산이 다시 성취되는 곳이고, 만유가 갱신되는 곳이고, 모든 비극이 종말을 고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옛 하늘과 옛땅은 어떻게 되며 새 하늘과 새 땅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멸절설과 갱신론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멸절설은 버커와 같은 루터교 신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한데, 현재 이 우주는 완전히 멸절되고 새로워져서 옛것과 새것 사이에는 연속이 전혀 없다,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호크마 같은 사람들은 갱신론을 말합니다. 갱신론이란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카이노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지금 있는 옛하늘과 옛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제자들이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기록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지만 그렇다고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갱신론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낙관론을 가져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

라 외적인 것, 형태적인 옛것이 완전히 변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불에 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교체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3)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때에 부활한 우리의 몸은 부활한 주님의 몸과 같은 몸입니다. 흔히 그것을 영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살기 알맞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몸가지고는 천국에 못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런 땅이 아니고 영체가 살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는가

1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에도 인생을 흔히 고해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히브리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건너갈 수 없는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다는 이별이고 바로 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홍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라고 했듯이 바다는 바로 슬픔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런 바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무엇이든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천국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첫째로 바다가, 즉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4절에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시며", 거기에는 주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즉 슬픔이 없습니다. 셋째로 "다시 사망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또 "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암이니 뭐 이런 질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밤이 없다고 했고, 27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했으며, 22장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슬픔과 죄악과 고통과 밤과 저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곳, 멸망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곳(롬 8:21), 만유가 회복되는 때(행 3:21)가 바로 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2.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물론 옛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옛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이 신랑되신 예수님

새 예루살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모두 다 거기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승자들만이,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1) 새 예루살렘의 특징

첫째로 아름답습니다. 2절에 보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예비된 신부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근원이 되는 사탄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넷째로 만물이 새롭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했는데 이 만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섯째로 갈증이 없습니다. 6절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생수만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면 시원해지듯이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 갈증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든 갈증들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섯째로 4절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창조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이 세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다 병들고, 썩고, 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것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2)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는가?

새 예루살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모두 다 거기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승자들만이,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적은 사탄 마귀와, 이 세상과, 내 자신의 욕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3대 적입니다.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힘이 지고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천국에서 제외될 자들

8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간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란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비겁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옹호한 자들, 살인자들은 못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 점치고 마술하고 그러는 복술자들이 다 술객들입니다. 또 행음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음행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은 못들어가는데 절간에 가는 것만이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탐욕 자체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의 심판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슬픔,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 예배에 참가하고 ▶



윤 명 식
<장로, 기획실장>

북방선교를 위한 교두보 마련

한국에서 오시는 신성종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받고 싶어
길림성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교회 근처에서 자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신목사님의 간단한 인사만 남기고 축도드리고 나오려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못내 섭섭해하는 것을 보았다. 버스가 떠날 때 그 무시무시한 문화혁명 중에도 교회를 지킨,
가냘프게 보이지만 위대한 믿음의 손들을 흔들어 송별해주었다.

1995년 7월 10일 오후 1시 50분, 충현교회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축기공식 참가단 95명은 김포공항에서 단장인 신성종 목사님의 출발 기도를 시작으로 북방선교의 원대한 비전을 안고 북쪽 하늘을 향해 중화인민공화국 민항기에 탑승하였다.

당일 북경을 거쳐 신학원이 세워질 장춘에 도착한 것은 밤 9시 50분이었다. 공항에는 길림성기독교 양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장춘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했다.

그러나 중국에 갈 때마다 마중 나와 주던 종교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일말의 불안이 나를 엄습하였다. 그것은 이번 행사를 정부당국이 모르는채는 할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금번 우리의 중국내 여행을 담당한 중국여행사는 국가가 경영하는 회사로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여행사는 길림성 정부로부터 기공식 행사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들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이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허가는 났지만 길림성장의 허가는 아직 서류가 계류중이고 옥외에서 종교집회를 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므로 여행사가 기공식 현지를 안내하는 일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나는 지난번 중국에 왔을 때 기공식전에 대해서 민족사무위원회, 종교국과 통전부의 양해를 구했으니 여행사는 걱정하지 말고 기공식 장소에 오전 10시까지 우리를 데려다만 주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중국의 공안당국이 그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의 행사를 저지시킬 우려가 있어 예정시간보다 2시간을 앞당겨서 그들이 현장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인 오전 8시에 전격적으로 기공식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단원들을 재촉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쟁월담의 중국인 화춘교회 교인들이 밤을 새워 예배드릴 강대상과 식장을 마련하였으며 자기 교회의 의자를 날라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을 보고 저들이 길림성기독교신학원에 거는 기대를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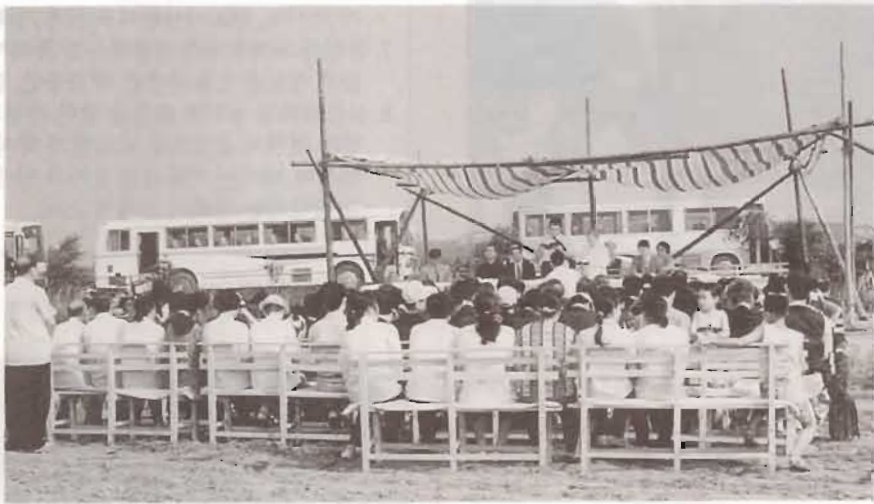
예배는 길림성기독교양회의 부주석인 김원배 장로의 사회와 김은태 선교사의 기도,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원장이신 소세광 목사의 설교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 후원이사회 이사장이신 신성종 목사의 기공선언, 그리고 호산나중창단과 이수철 집사의 특송이 있었고 길림성기독교신학원 후원이사회 감사이신 박봉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는 화춘교회 교인들과 같이 드렸다. 참으로 은혜롭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선교와 나아가서 북한선교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였다.

예배 후에 신성종 목사님의 역사적인

첫 삽질을 시작으로 모든 분들이 삽질을 하였다.

지난해 4월 11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과 처음 이곳을 방문하여 신학원 설립의향서를 교환하고 이 일을 추진해온 지 1년 3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현교회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멀고 높다. 신학원 최종허가, 건축허가, 건축, 학생모집, 교수확보, 교과과정, 학교운영, 장학금 지급 등이 있다. 아무리 저들이 이 일을 지연시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을 확신한다.

“주님, 어서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어주시옵소서”

기공식 행사를 다 마치니 안도의 한숨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구체적으로 느끼며 알게 되었다.

여행사 직원들은 오늘의 이 행사를 어떻게 상부에 보고하며 문책받을 것인가 걱정하며 대단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여행사 직원중 한 사람은 공산당 당원이며 공안부 요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곳을 떠났다.

기공식 예배에 허를 찔린 공안당국은 다음날 우리 일행이 백두산을 향하여 갈 때는 일찍부터 우리 버스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다녔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하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에스코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달렸다.

바울이 로마에 호송될 때 로마군은 죄인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호위한 것이란 것을 그 로마군은 알고 있지 못하

였다. 우리도 일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신목사님의 간단한 인사만 남기고 축도드리고 나오려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못내 섭섭해하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허락하였더라면 그들과 예배드리며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친교도 충분히 나눌 수 있었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마음도 아팠다. 우리가 차에 타니 중국 형제들이 각 버스마다 수박을 여러 개씩 실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버스가 떠날 때 그 무시무시한 문화혁명 중에도 교회를 지킨, 가냘프게 보이지만 위대한 믿음의 손들을 흔들어 송별해주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랑과 복음의 빛을 쬔는 날이 있어야 할텐데 생각하면서 신학원을 어서 속히 지어 저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님, 저들에게 더욱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백두산 등정을 마치고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숭문문교회에서 드렸다. 찬송가도 성경도 다 우리와 같았다. 예배중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특별한 양을 하였으며 조선족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보수적이며 은혜로우셔서 마치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다음날 7월 17일 12시 30분, 우리 일행 중 먼저 귀국한 분을 제외한 전원이 건강한 모습으로 북경공항을 떠나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이번 여행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단순한 관광여행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의 여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원들에게는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부여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만인 점이 있더라도 선교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감내하여 주기를 호소했다. 과연 우리 단원들은 그렇게 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회만 나면 전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여행하는 도중 운전기사과 안내원에게 전도를 하여 각 버스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 찬송 합본을 여유있게 가지고 가서 그곳 형제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단원이 그곳 현실을 보면서 중국선교와 나아가 북한선교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기도의 헌신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행 16:9-10)

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안당국의 우리에게 대한 감시는 우리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으리라.

처음부터 버스는 예정보다 늦게 출발하였고 도중에 고장난 차도 있어서 백두산 근처인 이도백하에는 예정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였다.

중국에 와서 그때까지 우리는 그룹별로 호텔방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한번도 전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 교회 이외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저들의 법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인 교회인 이도백하교회에서 우리만의 기도회를 가질 예정으로 교회당을 빌려 놓았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오는 것을 미리 안 중국의 형제들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오시는 신성종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받고 싶어 길림성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교회 근처에서 자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우리보다 먼저 와 있던 공안원은 신성종 목사님이 설교해서는 안된다고 하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 가족 영어예배부에서 예배 드려

제임스 T. 레이니(James T. Laney, 사진에서 왼쪽) 주한 미국대사 가족이 지난 주일(7월 16일) 오전 9시 봉사관 지하 1층 가나홀에서 드려지는 영어예배에 주한 외국인 및 성도들 2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레이니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하기 전 16년 동안 미국 에모리대학 총장직을 역임했고 1959년부터 1964년까지 감리교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보내며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바 있으며 한국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가족으로는 버르타 여사를 비롯하여 딸 조안, 사위 윌리엄 반 목사, 손자 4명으로 이날 8명의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예배 후 당회장 신성중 목사 및 여러 교우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환담을 하고



다시 와서 영어예배는 물론 본당에서의 대예배도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레이니 대사 가족이 참석한 것은 영어예배부가 영어예배를 주한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그들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어예배를 폭넓게 소개하여 복음적 사역 및 선교사역에 일조하고자 주한 외국인 대사를 초청하는 순서로 초대된 것이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7/24(월) ~ 8/30(수) '95 여름휴가
· 신성중 목사 : 7/24(월) ~ 7/28(금) '95 여름휴가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한·미 정상회담에 큰 성과가 있게 하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총현의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은혜충만, 성령충만, 말씀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8. 삼백백화점 붕괴로 슬픔을 당한 가정과 폭우로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시며,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 우리 부서는 지금 / 영어교육부 ▶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이부성

(집사, 영어교육부 부감)

매 주일 영어예배(오전 9~10시)가 끝난 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봉사관 지하 1층 '가나홀'을 중심으로 1층, 2층과 지하 3층에서는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 위해 영어성경공부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유치부에서 성인부에 이르는 각기 14개반 170여명이 무더위에 아랑곳없이 영어성경공부를 배우기 위한 열의로 가득차 있다.

풍습과 언어가 각기 다르지만, '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라는 것을 실증하듯 피부색과 언어와 풍습이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외국인들과 해외교포들과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한 해외유학생과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한 부모와 자녀들과 영어성경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영어성경공부를 위한 열기로 가득차 있다.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중국인, 일본인, 유럽인, 미국인, 남미인 심지어 간혹 러시아인도 성경공부반에 참석한다. 그들의 진지한 학습태도와 토론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일학교 교사는 외국인, 해외교포, 해외에서 공부한 분들 중에서 성경말씀에 뛰어난 업선된 능력있는 교사들이다. 1988년 서울 세계올림픽이 개최됨을 계기로 한국에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의 복음전도를 위해 탄생된 영어예배부와 함께 그 이듬해인 1989년에 정식으로 영어성경학교가 개설되어 그해 여름부터 계절학교가 열렸으니, 금년으로 여름영어성경학교는 제7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영어교육부(부장 : 이병학 장로, 부감 : 장영옥 권사, 이부성 집사) 산하 영어성경주일학교(English Bible Sunday School)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으로 7회를 맞는 여름성경학교(Summer Vacation Bible School)는 8월 15일(화) 오전 9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1박 2일간 총현기독교원에서 열린다. 주강사로는 Rev. K. Huijinga 목사를 모시고 'Celebrating Our Christian Independence'라는 주제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요절로 삼고 대학·청년부를 중심으로 갖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각 그룹별 Drama경연대회, Burn fire with candle, Sing along팀의 찬양의 밤, 간증, 내고향 소개(나라별 소개), 각 나라 민속경기 시범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청년들로 구성된 Young Adults 그룹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성경공부가 끝난 후 개척교회(강원도 춘천소재)와 교아원, 양로원을 찾아 전도 및 심방을 돌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국의 참모습을 익히고 있다.

"영어성경공부를 통해 보다 심도있게 말씀을 연구하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실 분들은 누구나 오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환영합니다!"

▲ 여름성경학교 때 K-2(유치부에서 초등2부)반 학생들이 인형극 영어성경을 보고 있다.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경리직 : 여 0명
① 여상고를 졸업 및 졸업예정자
② 나이 : 19~21세 정도
- 영상직 : 남 0명
① 비디오카메라 촬영, 편집 유경험자
② 나이 : 20~23세 정도

- 지각 및 제출서류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 제출처 : 총현교회 사무국(☎ 552-8200, 교 402)

Bible Class	모임장소	교사
K-2 (유치부에서 초등2년)	복지관 2층 204호	Mr. Michael Chung
K-3, 4 (초등 3,4학년)	복지관 2층 202호	Ms. Ji Hee Lee
K-5, 6 (초등 5,6학년)	복지관 1층 106호	Ms. Sunny Park
Youth 그룹 (중등 7~8학년)	복지관 지하 3층	Ms. Julie Rah
Youth 그룹 (고등 9~10학년)	복지관 지하 3층	Mr. Tom Lee
Youth 그룹 (고등 11~12학년)	복지관 지하 3층	Mr. Roger Nam
Young Adult I 그룹 (대학·청년부)	복지관 1층(가나홀)	Mr. Einstein Lavina
Young Adult II 그룹 (대학·청년부)	복지관 1층(가나홀)	Ms. Michelle Kim
Young Adult III 그룹 (대학·청년부)	복지관 1층(가나홀)	Mr. Paul Chung
Young Adult IV 그룹 (대학·청년부)	복지관 1층(가나홀)	Mr. Darrell Wiens
Adult I 그룹 (성인부)	복지관 1층	Mrs. Alice Lavina
Adult II 그룹 (성인부)	복지관 1층	Mr. Rusty Reinhardt
Adult III 그룹 (성인부)	복지관 1층	Mr. Mark Schults
Zion Choir (시온성가대)	본당 1층 찬양연습실	Rev. K. Huijinga